



현·장·탐·방

친환경 산업단지의 생명수 공급을 책임진다!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

인구 51만 명의 계획도시이자 경남지역발전의 핵으로 산업화 첨병지역인 창원시.

협회가 도착했을 때 창원은 왕복 8차선 12km에 달하는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이미 벚꽃이 가득 만개하여 화사한 봄을 맞고 있었다.

화려한 벚꽃길을 지나 창원의 동맥이자 정맥인 상·하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가 보았다.

친환경사업에 앞장서는 국내 대표 우수 사업소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74년, 기계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기지 개발 고시를 기점으로 태동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건설교통국에서 국단위 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했으며, 현재는 업무, 급수, 정수, 하수과를 포함한 4과 13담당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대비 상하수도 사업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경영평가에서도 항상 우수 사업소로 선정되는 창원시는 질 좋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에 따라 3개 읍면 지역의 급배수 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촌지역 하수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대산면(동읍)과 북면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시가지 내 노후 하수관 정비 등의 사업을 통해 생태계를 보존하고 되살리는 친환경적인 수도사업에도 능동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국내 최초, 강변여과수 도입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국내 최초의 강변여과수 도입 사업소라는 점. 지난 97년 각종 오염에 취약하고 계절별 수량과 수질의 변동이 심한 낙동강 물을 이용하기 위해 도입한 강변여과수 시설은 현재 2만 톤 규모이며, 지난 2000년부터 추진 중인 1단계(6만 톤) 사업이 올 10월경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시가지의 부족 수량에 따라 개발이 예정된 북면 도시개발지역의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2단계 개발도 이미 추진해 중에 있다. 따라서 오는 2008년이면 총 14만톤의 강변여과수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국내 유일의 도시가 될 것이다.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급수과에서는 이러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더불어 읍면지역의 급배수시설 확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급수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후관 적기 교체 같은 노후시설물 개량 등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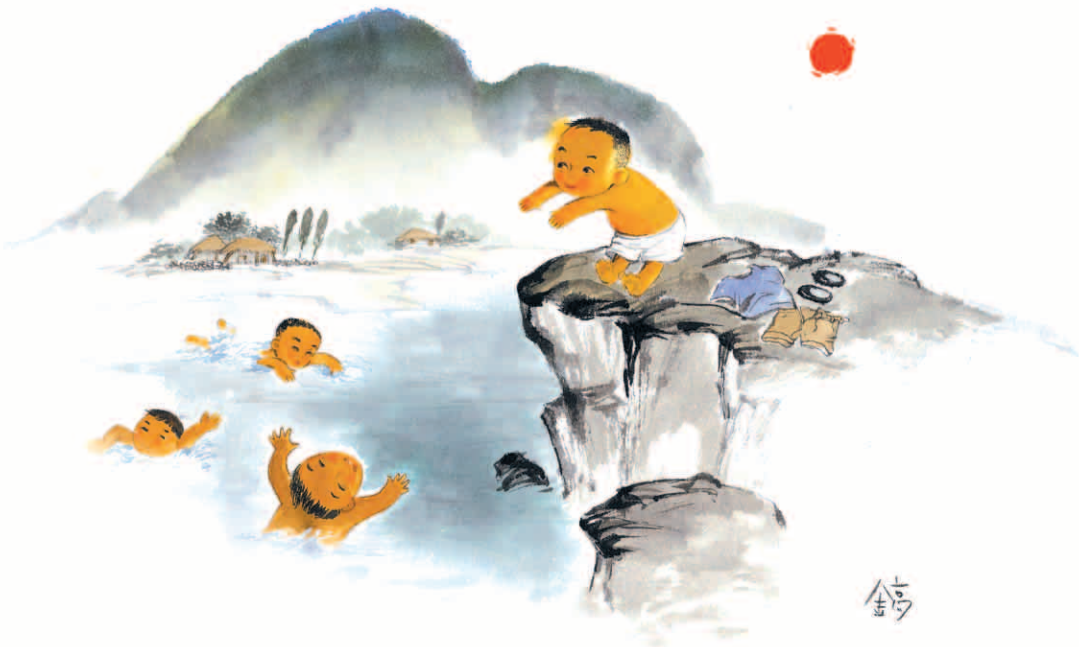
한편 정수과에서는 철저한 정수시설 관리를 위해 탁도, pH, DO, 잔류염소, 온도 등 정수 공정별 수질 자동감시 등의 활동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하수과에서도 생태계 보존과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면적 14,380평 13,000㎡(1일) 규모의 차집관거 20.3km인 동읍하수종말처리장을 대산면 유등리 일원에 건설 중에 있으며, 북면에도 1일 처리용량 12,000㎡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한창 추진 중에 있다

신뢰행정의 표본,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행정을 신뢰행정의 표본으로 만들겠다는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수돗물을 필요한 만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또한 생활용수의 하수처리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편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그들이 있기에 창원시민들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① 강변여과수의 원수인 낙동강 전경
- ② 낙동강변의 취수정을 통해 취수된 물은 정수처리 전이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깨끗하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 ③ 금년 아철축제시 시민들에게 강변여과수를 홍보하고 있는 허환구 소장을 비롯한 사업소 직원들





▶ 국내 최초로 도입된 창원시의 강변여과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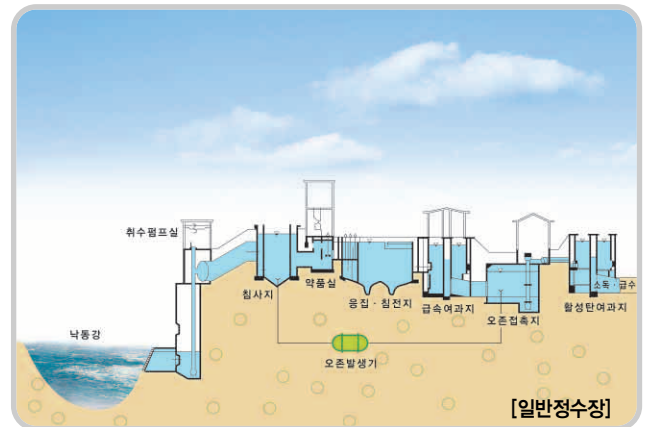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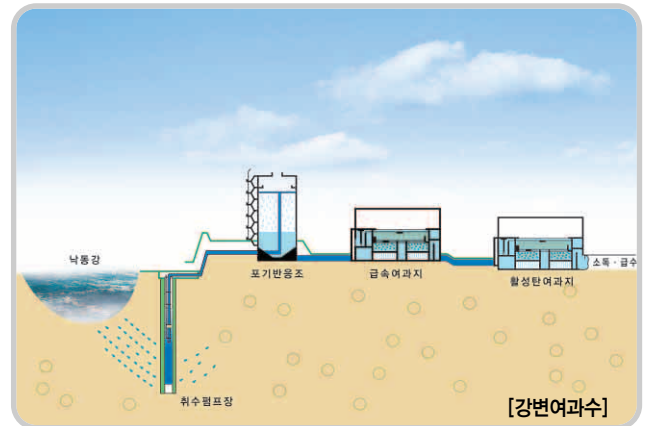
강변에 취수정을 뚫어 토양의 자정능력을 통해 오염물질이 제거된 양질의 원수를 가리켜 강변여과수라고 한다. 강변여과수는 표류수와 달리 사계절 수온이 일정해 수온변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홍수나 갈수기에도 수질과 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뿐더러, 정수·취수비용 절감과 슬러지 발생량의 감소로 친환경적인 시설인 셈. 그렇다면 왜 창원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강변여과수를 도입하게 된 것일까? 사실 몇 십년 전만 해도 수질이 워낙 좋았던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강변여과수 방식을 채택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낙동강의 수질오염 악화로 인해 표류수를 정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자,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변여과수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창원은 원수의 오염도와 더불어 여름철 갈수기에는 수량이 풍부하지 않아 사업소 직원들이 늘 비상근무를 해야 할만큼 고생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강변여과수 개발로 인해 이제는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강변여과수 업무에 관여해온 급수과 조우명 계장은 “특히 창원 지역은 모래자갈층이 잘 발달돼 강변여과수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그렇다고 개발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다. 비교 대상이나 참고할 만한 시설이 없었던 초기단계에서 개발에 참여한 인원들 모두 많은 시행착오와 고생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강변여과수 개발에 성공했고, ‘약품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의 물에 가까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될

쯤이면 강변여과수 시설이 위치한 대신정수장에는 강변여과수 홍보전시관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시민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 한다. 부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강변여과수로 불식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뢰할 수 있는 수도행정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CEO형 관료, 허환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직개편으로 취임 한 달째를 맞이한 허환구 소장. 업무파악에도 여념이 없을 허소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또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정책을 판단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인터뷰에 동석한 각 과의 과장들과 더불어 평소에도 난상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는 허소장은 “수돗물은 행정불신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먹으려고 있지 않지만, 전국 최초로 강변여과수를 도입한 사업소답게 수돗물만큼 안전한 식수가 없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번 시민의 날에 강변여과수 홍보관을 만들어 운영해 보았습니다. 강변여과수를 마셔본 시민들이 정수기물이 아니냐고 되물으시더군요. 그때 수돗물의 품질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한 초등학생이 제게 사람들에게 수돗물이라고 말하면 안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시민들의 불신이 이 정도구나 하는 실감이 들더군요. 사실 상하수도인들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는 생명수를 다루는 성스러운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나 환경 등을 다루는 사람들과 달리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종사자들 역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허소장은 창원시에 공급되는 하루 12만톤의 수돗물은 가격으로 따져 6억원 어치에 달하지만, 그 귀한 물이 허드렛물로 버려지는 현실이 못내 안타깝다고 말한다. 해서 사업소장이 아니라 회사의 CEO라는 생각으로 사업소를 경영해갈 생각이란다. 이는 보다 전략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상하수도 사업을 견지하겠다는 얘기다. 그런 판단 아래 허소장은 수도 누수포상제를 시의회에 건의했다. 상하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이다.

직원들의 자긍심과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최근에 유니폼과 명찰 착용을 시작한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화합과 조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는 허소장은 시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면서 저렴한 물이 수돗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